

청정자연 속 강·바다 품은 호남, 물산업 최적지

‘블루골드’ 물산업을 잡아라

<3> 호남의 미래 물산업에 있다



해수담수화 사업 등 세계 물산업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 2025년 약 1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사진은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주암댐의 물줄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친구야, 너 그거 아니? 우리는 모두 바다에서 왔어,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와 같아. 하지만 넘쳐나는 쓰레기와 핵폐기물, 원유 유출, 생활폐수로 바다는 오염돼 우리가 쓸 수 없게 됐어”

여수세계박람회와 최고 히트 상품인 ‘빅오쇼’의 줄거리다. 빅오쇼는 인간에게 먹을거리와 삶의 터전을 안겨줬던 바다가 오염된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 뒤 인간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줬다.

이처럼 물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인류의 고대 문명은 모두 강 주변에서 탄생했고, 물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나갔다. 이 같은 논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물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장기적 물산업 발전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목마른 광주·전남=전남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수돗물값은 가장 비싸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인원으로는 18만여명이 아직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수돗물값은 m³당 786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싸고 전국 평균보다도 27% 높다.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물은 식량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산업은 결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광주·전남은 더욱 뒤쳐져있다. 호남의 강과 바다의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물 산업에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커지는 물 시장=정부는 최근 세계 물시장 1% 점유를 목표로 물산업 육성에 나섰다. 물 관련 재정사업 규모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물산업 펀드 조성과 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산업 해외수출액은 2017년까지 6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0.4%에 불과한 세계 물시장 점유율을 1%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물시장 규

2219개 성과 심사시 조류발전 유리

하수방류수 재이용 등 사업 무궁무진

세계 물시장 2025년 1000조원대 성장

정부 1% 점유 목표 투자 확대 ‘기회’로

모는 50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주역 산업인 반도체(2800억달러)나 조선(2500억달러)보다 시장규모가 2배가량 크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물시장 진출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아시아 물 펀드(Asia Water Fund)를 조성하고 국제개발은행과 협력해 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세계 물산업 시장이 현재 약 400조원 규모에서 2025년 약 1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물시장 산업도 활발=정부는 상·하수도 및 담수플랜트, 유역관리, 친수구역개발 등을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 물시장은 설계·건설·건설이 약 1690억달러, 운영·관리서비스가 약 1930억달러 등 3620억달러(약 4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별로는 상수도가 1720억달러, 하수도가 1530억달러, 해수담수화 120억달러, 물 재이용 10억달러, 공업용수 및 폐수시설 240억달러 등이다. 물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 된 셈이다. 관련 국내 산업의 발전도 활발하다. 수자원공사는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

전사업 등 21개국에서 36개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도 호주·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하수·폐수처리 및 해수담수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 등은 중동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전 및 담수화플랜트를, 코오롱은 리비아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담수화부문에서 2010년에만 2조3000억원을 수주하는 등 세계 선두기업으로 부상했다.

◇호남의 미래, 물 산업에 있다=광주·전남은 조류 발전 등 물을 활용한 산업 발전 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조류발전의 경우 2219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의 섬과 육지, 섬과 섬 사이가 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조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수심이 깊지 않아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다. 지난 2009년부터 올물목에 1000kW급 조류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장죽수도에 110kW급 발전소가 지난 3월부터 시험 가동 중이다.

지난해 여수시와 LG-히타치 워터솔루션은 하수재이용 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하수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용량은 3만5000t 규모로 총사업비는 450억원에 달한다. 버려지는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만으로 4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가뭄 등에도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하수방류수를 재이용해 바다로 방출되는 하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하수 재이용시 연간 약 58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발전연구원 김현철 실장은 “과거 물을 흔한 자원으로 치부해 ‘물 쓰듯’ 했지만 한국도 엄연한 물부족 국가이다”면서 “물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정착과 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사회는 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사진은 가뭄에 말라붙은 주암호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